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군 옥

2015년 12월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진 영

이 군 옥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이군옥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위 원

위 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년 12월

감사의 글

NGO활동하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졸업한 지 20여년이 되어 다시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보냈다. 이후 대학원의 문을 두드려 늦각이로 진학하여 바쁜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개인적인 여유로움을 멀리하고 보낸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부족한 것만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논문을 마치고 감사의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논문을 마치기까지 걱정하여 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영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를 돌리는데 도와주신 직장 동료들과 제주시농협 김원진 지점장님, 제주감협 김인범 지점장님, 송정훈님, 아낌없이 격려하여주신 변봉남 회장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어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 주신 농업인 등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대학 수능 공부하느라 고생한 아들 재현, 직장일 마치고 대학원 강의 듣고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집안에 들어서면 걱정하고 응원해주던 사랑하는 딸 가연이, 바쁜 와중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면서도 이해를 해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일 마치고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수업을 다니는 동안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한 편의 논문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밑거름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더욱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으로 감사함을 보답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군 옥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내용	4
II. 이론적 배경	5
1. 농촌 지역사회 특성	5
2. 베이비붐 세대 정의 및 특성	8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8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9
3.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	11
1) 노후준비의 정의	11
2) 노후준비의 영역	12
(1) 경제적 노후준비	12
(2) 신체적 노후준비	13
(3) 사회적 노후준비	14
4. 선행연구 검토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모형	20
2. 연구 가설	22
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3

4. 변인 및 측정도구	23
1) 독립변인	23
2) 종속변인	24
3) 분석 방법	25
IV. 연구결과 및 분석	26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6
1) 인구 사회학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26
2)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	27
3)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	29
2.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1
1)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1
2)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3
3)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35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8
4.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40
1)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0
2)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2
3)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4
V. 결론 및 제언	46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46
2) 정책적 제언	48

참고문헌	50
<부록> 설문지	55

표 목 차

<표 1 > 농가 및 농가인구	5
<표 2 > 경영주 연령별 농가	6
<표 3 > 연령별 농가인구	7
<표 4 > 농가인구 고령화율	7
<표 5 > 조사도구의 구성	24
<표 6 > 인구 사회학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26
<표 7 >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	28
<표 8 >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	30
<표 9 >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2
<표 10>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4
<표 11>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37
<표 1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9
<표 18>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1
<표 19>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3
<표 20>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4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21
-------------------	----

[국 문 초 록]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군 옥
지도교수 김 진 영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저출산·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인구고령화 비율이 높고 고령화 진행속도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존 선행연구는 일반 중년층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적절한 사회적 지원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료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평균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성별은 남자가 56.0%, 학력은 고졸이 46.9%, 종교는 없는 경우가 61.8% 순의 분포를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영농 형태는 과수작물 45.9%, 농외직업이 겸업농 71.5%, 연소득은 이천만원 이상 59.4%의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 과수 농업과 겸업농 순으로 조사 되었다.

두 번째, 가족관계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의 가족구성 형태

가 37.7%, 자녀의 수는 2명이 49.8%,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있는 경우가 96.6%,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이 '있다'가 33.8%, 노부모 부양부담이 '그저 그렇다'가 29.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노인인식 연령은 70세부터가 51.2%, 노후준비 관심이 '매우 있다' 39.1%, 노후준비 인식 시기는 50대부터가 8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 건강관련 문제가 45.4%, 노후 영농의향이 '있다'가 82.6%, 노후 영농의향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43.5%, 노후준비 계획은 '전혀 없다'가 33.8%, 노후준비 방법에는 농업소득이 38.2%, 노후준비 계획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36.3%, 노인시설 입소에는 '매우 그렇다'가 28.1%, 가장 많았다.

넷째,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심리적·사회적 여유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영농 형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여타 농업보다 소득이 높은 축산과 과수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등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수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값을 보면 자녀 수 3명인 경우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2명 이상인 경우는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부모부양 부담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없다'가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있다'가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인식 연령, 노후에 일 할 의향, 노후준비 방법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준비 관심, 노후준비 인식시기, 노

후준비 계획,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계획 이유, 노인시설 입소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 인식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노후준비 인식연령의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70세부터' 노후에 일 할 의향은 '있다' 노후준비 방법은 '보험·연금가입'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노후준비 관심 '매우 있다', 노후준비 인식시기 '60대 이후부터' 노후준비계획 '매우 있다' 노후준비 방법 '예·적금가입' 노인시설 입소 '그저 그렇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 인식연령에서 '70세부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농형태와 연소득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영농형태는 축산과 과수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은 자녀의 수와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자녀 2명 이하가 대부분으로 미혼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핵가족화로 되어가는 가족구조의 현실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힘든 육체적 노동에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겪는 부담이 되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아홉째, 노후준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에서 노후준비계획은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노후준비 관심, 노후준비 방법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 노인시설입소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이 인식전환으로 기존 노인세대 보다 보험·연금 가입으로 노후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노후준비 관심에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들 중 영농형태, 연소득, 자녀의 수,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 노후준비관심, 노후준비계획, 노후준비방법, 노인시설 입소가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형태와의 관련성을 밝혀, 농업의 생산 구조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산업화, 농산물 개방으로 기존 영농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도입을 통해 소득의 다각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노동집약적 소득 작물 재배와 함께 농업경영의 풍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농촌관광, 전통식품 가공사업, 등으로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하여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촌 지역별 농업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다.

통계청의 출생통계(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297명 보다 감소한 1,18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0년에 11%,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이르게 되고, 2026년에는 20%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장기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처럼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주축인 50대는 긴 노후생활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통계청, 2012). 이와 더불어 노년부양비 2013년 16.7%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 22.1%로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을 것이다(e-s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농촌 지역 인구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201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4.7%, 2010년 20.9%, 2013년에는 37.3%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농가경영주 평균연령은 65.4세로 UN의 고령화 인구 기준인 65세를 초과한 농가경영주 중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7%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현실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농촌 지역은 이농 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농가인구 감소, 농업노동력의 감소, 고령화는 노인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부양의 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가족관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도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관련된 연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됨에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 연구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농업인들의 노후준비는 일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장차 고령자간 소득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 2015년부터 완전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는 오래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이미 은퇴한 고령자 간에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최경환, 2012).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촌사회 변화 속에서 농촌 지역 농업인들은 대한 사회복지 욕구가 높아가고 있으나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이 노후대비를 소홀할 경우 장차 본인 자신도 문제이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결국 차세대에 커다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김혜진, 2012).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노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사회적 소외와 고독의 경험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부양의식의 변화로 노후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기 힘들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스스로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못하면 여유롭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노년기는 인생의 주기에서 필연적인 인간의 생애이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노년기를 맞이하는 농촌 지역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이 노후준비는 노후에 삶의 질과 관련되어지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와 함께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준비 중요성을 인식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제주농촌 지역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 관련 변인 중 어떠한 변인들이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로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지금까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도시 중년층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연구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변인을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농업인 노후준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관계,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관계,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 따라 노후준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족관계, 노후인식 관련 변인은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농촌 지역사회 특성

농촌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산물 개방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경제적, 문화적, 기반시설의 취약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 이용기관 및 시설과 인력 배치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높을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이중섭, 2010). 1960년 이후 경제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청·장년층 농업인들이 새로운 직업과 자녀교육 등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향도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가구 수나 농가인구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김영화, 2008). 1980년대 들어서면서 농가인구는 28.4%를 차지하였지만, 2013년에는 전체 인구의 5.7% 수준으로 감소하여 왔다. 제주에서도 농가인구는 112천명인 18.5%로 전국 농가인구 비중 보다 높은 비율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농촌의 상대적 소득 격차 심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며, 복지 및 생활여건,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향후 농가인구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 1>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천가구, 천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주(2013)
농 가	1,195	1,177	1,163	1,151	1,142	39
농가비중(%)	7.0	6.8	6.6	6.4	6.3	19.6
농가인구	3,117	3,063	2,962	2,912	2,847	111
남자	1,510	1,501	1,456	1,424	1,387	56
여자	1,607	1,562	1,506	1,488	1,461	55
성비	94.0	96.1	96.6	95.7	94.9	101.8
농가인구비중(%)	6.3	6.2	6.0	5.8	5.7	18.5

자료: 통계청(2013)

이러한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도 가져오게 된다.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는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농가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노령화가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13년)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경영주 농가가구 비율은 40대 9.3%, 50대 23.4%, 60대 29.6%, 70대 이상 37.7%이며, 제주지역은 50대 이하 48.2%, 60대 이상 51.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농가가구 경영주의 노령화는 후계자에 의해 농가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농촌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표 2>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가구, 천명, %)

	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평균연령
2013	1,142 (100.0)	14 (1.2)	93 (8.1)	267 (23.4)	338 (29.6)	430 (37.7)	65.4
남 자	949 (100.0)	13 (1.4)	87 (9.2)	244 (25.7)	286 (30.2)	318 (33.5)	64.3
여 자	193 (100.0)	0 (0.2)	5 (2.8)	23 (12.1)	52 (26.7)	113 (58.2)	70.3
증 감	-9.1	-4.3	-13.7	-5.5	0.6	13.9	1.0
증감률	-0.8	-24.0	-12.9	-2.0	0.2	3.3	

자료: 통계청(2013)

농가인구 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수의 20%, 60세 이상 농업인은 47.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비중 높게 나타나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명, %)

	계	10세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2013	2,847 (100.0)	105 (3.7)	209 (7.4)	168 (5.9)	161 (5.7)	273 (9.6)	570 (20.0)	607 (21.3)	754 (26.5)
남자	1,387 (100.0)	55 (4.0)	111 (8.0)	86 (6.2)	93 (6.7)	138 (9.9)	266 (19.2)	293 (21.1)	345 (24.9)
여자	1,461 (100.0)	50 (3.4)	98 (6.7)	81 (5.6)	69 (4.7)	136 (9.3)	303 (20.8)	314 (21.5)	409 (28.0)
증 감	-64.1	-8.9	-17.9	-13.3	-13.0	-25.1	-3.8	0.4	17.5
증감률	-2.2	-7.8	-7.9	-7.4	-7.4	-8.4	-0.7	0.1	2.4

자료 : 통계청(2013)

통계청(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2,847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1,062천명으로 37.3%로 전체 고령화율 12.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 지역에서도 농가 고령화가 23%로 농촌 노동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었다.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기존 전통사회에서 가족에 의해 부양되어져 왔던 부양체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에 남겨진 노인들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야하기 때문에 고된 농업 노동을 감수하게 된다. 이로 인한 심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 환경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촌 지역 고령화의 진전은 농촌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 인하여 농촌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국가적 관심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영주, 2008; 이중섭, 2010).

<표 4> 농가인구 고령화율

(단위: 천명, %)

	2012	2013	제주(2013)
농 가 인 구	2,912	2,847	111
65세 이상	1,038	1,062	25
농가 고령화율(%)	35.6	37.3	22.5
남자	34.1	35.9	10.2
여자	37.1	38.6	12.8
전체 고령화율(%)	11.8	12.2	13.1

자료: 통계청(2013).

2. 베이비붐세대 정의 및 특성

1) 베이비붐세대의 정의

베이비붐(baby boom)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전쟁이나 경제침체 이후 사회가 안정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시기에 출생한 코호트를 베이비붐이라고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베이비붐 용어의 기원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함께 출산율이 3.0 이상이었던 코호트 세대를 일컫는다(김영민, 2006).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으로 단카이 세대라 칭하며 그 규모는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출산율이 급증하여 생긴 인구를 베이비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존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코호트의 개념으로 세대를 파악한 김우성 외(2007)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그 집단의 세대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에 유신 시대와 광주 민주화운동, 고도의 경제성장,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 교육 과밀화 등을 경험한 1954~196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로 보았다.

통계청(2013)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 출생률이 급상승하여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1963년까지 9년의 기간에 태어난 연령으로 2013년 현재 74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단카이’의 경우 ‘덩어리’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의 베이비붐은 ‘거대한 도마뱀 속 돼지(pig in a python)’라고 불렀는데, 이는 돼지부대가 생애주기를 지나갈 때면 사회는 이들 다수 집단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함인회, 2002).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베이비, 스포크 베이비, 스푸트니크세대, 펍시세대, Rock세대, love 세대, me세대, 히피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한국의 베이비붐은 1990년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직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가치관의 전환기에 있는 긴 세대이다. 은퇴 후 여명이 짧아 노후준비에 부담이 적었던 부모세대와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자녀세대 사이에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전환기적 ‘긴세대’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는 이만큼 그들의 수적 우세함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합해 보았을 때 일본이 베이비붐 세대는 시간적 범위는 아주 좁고(방하남·신동균·이성균, 2010), 한국의 베이비붐은 미국의 18년에 비해서 약 8년여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 영향력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세대로 불림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붐 세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노인인구로 유입이 시작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박덕배,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특정한 시기 한국전쟁 후 출생아 수가 폭증한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한다.

2)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베이비붐 세대는 특정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높은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서, 고령사회를 인구사회학적으로 주도하게 될 노인인구로 주목되는 집단이다(김미혜, 2010). 베이비붐 세대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뚜렷한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동란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정 기간의 출생자(1955년~1963년)들로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맞고 있는 고령화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대표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대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집약적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사회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활동한 세대이며, 근대적 핵가족구조 속에서 도시화한 생활양식을 경험 세대라고 할 수 있다(김미혜, 2010). 인구집단으로서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당시의 한

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라이프코스가 역사적 맥락,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한경혜, 2010).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대의 유년기에 절대적 빈곤의 시대를 지내야 했고, 10대와 20대 시절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지내야 했다.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기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했다. 사회에 진출한 시기인 1980년대에는 일명 넥타이부대로써 민주화에 참여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IMF를 겪고, 경제활동에 있어 큰 타격을 직접 겪어야 했던(방하남·신동균·이성균, 2010) 세대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의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어 경제의 주된 수입원인 가장으로서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에는 소홀하였다, 국민연금외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상태로, 젊은 시절 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불안한 노후를 맞을 위험성이 있다. 불안한 노후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되어 철저한 노후준비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걱정하는 황금 세대를 갈망하는 세대라 볼 수 있다(김경아·김현수, 2013).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 세대보다 도시지역 거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성세대 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높고, 경제적으로 절약에 민감하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박지승, 2012).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 급여를 받아 사회적 이전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면,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졌다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활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서는 현재 노인들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로 은퇴 후 재정악화와 문화 활동 욕구 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정호성·강성원·문외솔 외, 2010).

3.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

1) 노후준비의 정의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曆年齡)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은퇴, 정년(停年)과 정년(定年) 등이 있다. 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은퇴(隱退)는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세속의 일에서 손을 떼고 한거(閑居)하는 것을 뜻한다.

정년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 있는 연령(定限年齡), 즉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정년(定年)은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즉, 근로로부터의 은퇴에 따른 소득의 결여를 각종 연금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는 신체적으로는 인체의 노화로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면하는 인생의 한 시기라고 한다.

역연령 적으로 일정한 연령(예; 60세 또는 65세) 이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한 연령은 논자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노후’는 일정한 고연령에 도달한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후는 각종 소득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의 삶’이라 할 수 있다(최경환, 2012).

‘준비’는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대비’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준비나 노후대비 모두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측하여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개체의 수준에서 체계적응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Lazarus Forkman, 1984, 김미혜,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 정의할 수 있다(박창제, 2010).

2) 노후준비의 영역

노후준비는 노년이 되기 이전부터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준비로서 시간적인 순서가 내포되어 있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노년기를 맞이할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층들은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노후준비를 다양한 영역별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등 3개 영역으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노후준비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는 경제력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여러 측면의 노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노인의 경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성은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건강유지와 여가활동, 자아실현과 관련된 욕구의 충족과 직결되어 성공적인 노후에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즉 경제적 보장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생활자원이 된다(최성재·장인협; 2006, 장정희, 2006에서 재인용).

연령의 증가에 따라 경제생활의 형태를 보면 중년기에는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의 수입을 올리게 되지만, 그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저하되다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소득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노후대책 없는 노부모는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생활 전체를 의존하게 되어 자녀의 노인 부담을 가중하고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조추용 외, 2009).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정기적인 수입보다는 특정

시기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농촌 지역 경제 특징 중 퇴직이라는 것이 없어 건강이 허락한다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과중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로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노후 생활에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관계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김문을, 2002; 백은영, 2008).

‘2014년 고령자 통계청’에서 2013년 고령자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경제문제가 53%로 2011년 경제문제 40.2%보다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소득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므로 경제적 노후준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2) 신체적 노후준비

인간의 신체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그 차이도 사람마다 다르다.

중·고령기는 노화에 접어드는 시기로 신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이로 인한 정신적 저하를 겪게 된다. 급작스러운 신체기능의 약화로 자신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노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강상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된다(김양이·이채우, 2008).

따라서 노년기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 심리적 안정감 등은 신체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최혜련, 2011). 연령이 많을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 농업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 발병률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2014)의 ‘2013년 사회조사결과’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유병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 31.8% 도시지역의

유병률 23.2%로 경제 및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신체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다.

Rowe와 Khan(1997)은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피해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였다(이정화, 2010, 재인용). Ladika(2009)는 바람직한 노화에 대한 특성으로 긍정적인 정신 자세와 좋은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다. ‘활동적 또는 바쁨을 유지’, ‘움직임’, ‘계속 일하기’, ‘독립해서 살고 운전하기’, ‘건강에 문제가 없음’, ‘건강증진 습관 가지기’, ‘좋은 유전자를 갖는 것’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신승희, 2010, 재인용). 홍성희 외(2006)의 중년기의 건강준비에 대한 조사에서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비결은 식습관, 낙천적인 성격, 규칙적인 생활로 나타났다.

건강한 삶이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마음의 병’은 신체적 병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은 스스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건강한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노후준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남은 기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즘에는 여생을 뜻 있게 보내기 위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여 삶의 활력소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누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경제적 준비보다 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크게 주목받지 않고 노년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강유진, 2005).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 개인의 결속력 높은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지

지를 받을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배우자나 지인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 기능과 적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김남순, 2009).

농촌 지역에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도시지역보다 강하게 젖어 있어 폭넓은 인간관계와 함께 취미활동,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자신의 사회관계망 유지에 적극적이 못하고 있다.

Antonucci(2000)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사회적 지지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느냐 때문에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밀접도의 수준에 따라 가장 가까운 방어막은 부모, 배우자, 자식들이고, 두 번째 방어막은 가까운 친구들이며, 세 번째 방어막은 업무상 동료나 다른 친구나 친척의 연계고리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 보고 하였다(유인순·최수일, 2012, 재인용).

특히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물질적인 원조와 서비스, 정서적 지원, 충고, 칭찬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자녀와의 잦은 접촉은 노인의 사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만족할수록 고독감이 감소한다(정애리, 2006, 재인용).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동시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계되어 더 높아진다(박경숙, 2000). 이처럼 사회적 노후준비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노후준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과 서비스 등 개인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런대도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노후준비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다양한 변수로 측정되고 있지만,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유무, 배우 자유무, 자녀 유무, 부모부양 여부, 소득, 등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종교 유무, 소득 등 변수별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은 노후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홍성희·곽인숙(2006), 박창제(2008), 이신영(2009)의 연구에서 노후준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이·이채우(2008), 이정화(2010), 배문조(2011)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 정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유진(2005), 이신영(2009), 권혁창·신혜리·김진수(2012)는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 여성은 정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인 연구결과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전귀연·배문조(2010)는 전반적으로 노후준비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강유진(2005), 이신영(2009),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권혁창·신혜리·김진수(2012), 최명화·최수일(2012)은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를 가진 집단은 가지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계희, 1998; 황승일, 2000). 또한, 종교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신체적, 정서적, 여가 노후준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윤영석·이병훈·박춘기(2013)연구에서 농가소득 저하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되어 농가빈곤 고착화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운우(2006)는 영농유형에 따라, 박대식·정명채·허장(2000)은 농외소득에 따라 농가소득이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과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말순(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전체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민선(2005)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지만, 김병운(2002), 송명숙(2002), 김기태(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등 그 결과가 달랐다.

두 번째 가족관계 특성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성 형태에서 장정희(2006)의 연구에서는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가족보다는 자녀와 함께 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형태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와 동거여부에서 배계희(1988), 신은식(2002), 황승일(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집단은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를 원하는 집단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를 원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므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라 하고 있다.

노후부양 부담에 대해서 양순미·홍숙자(2002)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인 경우 노부모부양과 자녀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자신들을 위해 노후준비를 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경제적, 정서적, 여가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영숙(2005)은 미혼자가 더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남순(2009), 황승일(2000)은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주성·최수일(2010)은 배우자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선(1983)의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노후준비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정숙(2007), 성말순(2004)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순(2009)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았다.

셋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후관련 인식 특성 요인에서는 최경환(2012), 정경희(2005), 김영완(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은 70세로 나타났다. 양순미·홍숙자(2002)의 연구에서도 노인인식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에 염려되는 문제에 대해 최경환(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 생활비, 자녀 뒷바라지, 의료비, 순으로 김영완(2010), 송석진(2004)의 연구에서는 건강문제가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라 나타나고 있으나 이현숙(200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문제라 하고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노후준비 계획에 대해서 박창제(2011)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였다. 최성재(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중년층의 노후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진(2004)의 연구에서는 도시인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는 ‘30대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의 순인 반면 농촌 거주 대상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경환(2012)의 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는 농업소득 증대, 국민연금가입, 예·적금, 개인연금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대식(2006)는 고령 농업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으므로 농업인들의 생계수단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영농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다.

노인시설입소는 노인시설입소의향이 있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았다. 황승일, (2000), 김양이(2008)의 연구에서는 시설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기대감이 약화하면서 독립적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입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농업인에 대한 노후준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노년의 장기화함에 따라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 준비 결정 요인에 관해 확인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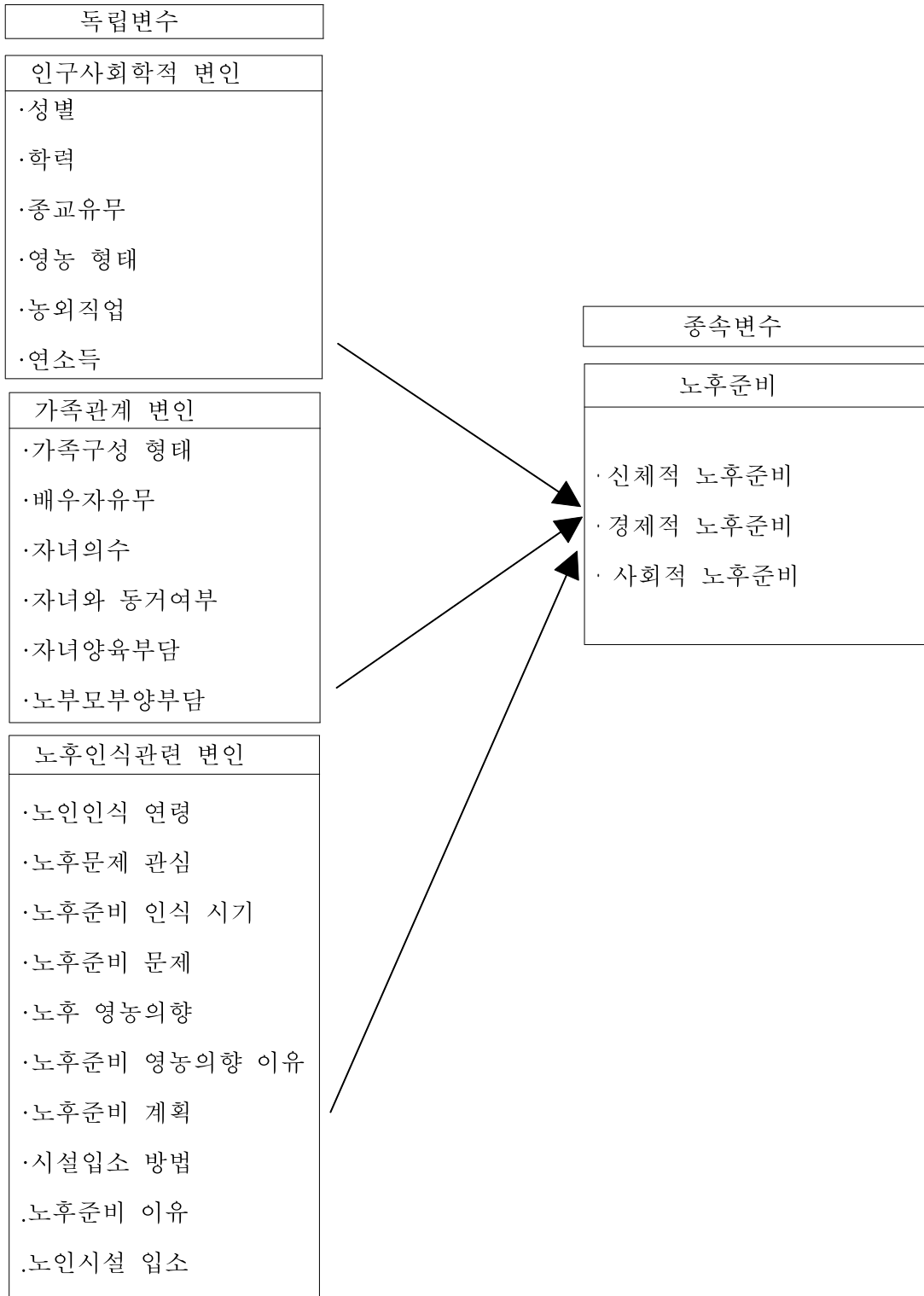
노후준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밝히거나 여가 활동, 부양실태, 사회활동, 성격유형, 기각된 신체 및 심리적인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나 역할, 가족의 지지 등에 초점을 두거나(오가실, 1993; 이영휘, 2002; 임인수, 2007; 차영란 외) 노후준비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노후준비의 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정집단 및 특정 영역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 농업인의 노후준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그나마 선행연구들은 영세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집단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 노후관련 인식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 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변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연구 설계 바탕으로 종속변인 노후준비에 각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I.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1. 성별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2. 학력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3. 종교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4. 영농 형태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5. 농외 직업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6. 연소득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II. 가족관계 변인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1. 가족구성 형태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2. 자녀의 수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3. 배우자 유무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4. 자녀와 동거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5. 자녀양육 부담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II-6. 노부모부양 부담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III. 노후인식 관계 변인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1. 노후준비인식 연령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2. 노후문제 인식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3. 노후준비 관심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4. 노후준비계획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5. 노후 영농 활동의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6. 노후준비 방법의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7. 시설입소 여부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역별 영농형태를 밭농사지역, 과수(시설)농사지역, 축산지역, 화훼농사지역으로 구분하여 2015년 2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6주간 베이비붐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와 보조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직접조사를 하였다. 총 280부를 조사하여 부실 기재된 74부를 제외한 2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변인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은 조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이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학력, 종교, 영농형태, 농외직업 보유, 연소득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 변인과 노후인식관련 변인은 배계희(1988), 황승일(2000), 김문을(2002), 성말순(2004), 송석진(2004), 배문조(2004), 강영숙(2005), 강유진(2006), 조미영(2006), 김양이(2008), 조추용(2009), 최경환(2012)등의 작성한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가족관계 변인은 6문항, 노후인식관련 변인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내용을 세부적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2)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항목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항목 가운데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항목은 배계희(1988), 황승일(2000), 송석진(2004)이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재구성하여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노후준비 설문 항목은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그저 그렇다’를 3점, ‘아니다’를 2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한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좋을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전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3$ 수준이다.

본 연구 논문에 사용한 조사도구의 내용을 세부적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Ⅲ-1>과 같다.

<표 5>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조사도구 내용		문항 수	설문유형
독립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학력, 종교, 영농 형태, 농외직업, 연소득	6	명목
	가족관계 변인	가족구성 형태,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의 수, 자녀양육부담, 배우자유무, 노부모부양부담	6	명목
	노후인식관계 변인	노인인식 시기, 노후 문제, 노후준비 관심, 노후 영농활동, 노후 영농활동 이유, 노후준비 계획, 노후준비인식 시기, 노후준비 방법, 시설입소 여부	9	명목
종속 변인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10	5점 리커트
		경제적 노후준비	7	5점 리커트
		사회적 노후준비	7	5점 리커트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회수된 설문지는 백분율, 평균, T-검증(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롯한 각 변인의 현황과 노후준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포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학력, 종교, 영농형태, 농외직업, 연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표6>와 같다.

<표 6>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16	56.0
	여	91	44.0
	합계	207	100.0
학 력	중학교 이하	29	14.0
	고등학교	97	46.9
	대학교 이상	81	39.1
	합계	207	100.0
종 교	있다	79	38.2
	없다	128	61.8
	합계	207	100.0
영농 형태	일반밭작물	59	28.5
	과수작물	95	45.9
	시설화훼	27	13.0
	축산	26	12.6
	합계	207	100.0
농외직업	있다	148	71.5
	없다	59	28.5
	합계	207	100.0
연소득	2천만원 미만	28	13.5
	2천만원 이상	123	59.4
	6천만원 이상	56	27.1
	합계	207	100.0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표본 207명 중 ‘남자’ 56.0%(116명), ‘여자’44.0%(91명)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학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졸업’ 46.9%(97명), ‘대학교졸업 이상’ 39.1%(81명) ‘중학교졸업 이하’가 14.0%(29명),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학교졸업 이상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가 61.8%(128명), ‘있다’가 38.2%(79명)로 나타나 종교가 없는 경우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영농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과수작물’45.9%(95명) ‘일반밭작물’28.5%(59명), ‘시설화훼’13.0%(27명), ‘축산’ 12.6%(26명)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 거주한 농업인들의 농사이외 직업에 종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있다’가 71.5%(148명) ‘없다’가 28.5%(59명)로 조사되어 순수 농업인보다 겸업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소득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천만원 이상’이 59.4%(123명), ‘육천만원 이상’이 27.1%(56명), ‘이천만원 미만’이 13.5%(28명)순으로 조사되어 축산 및 시설작물 등 고소득 작물의 생산 영농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적지 않는 수입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가족구성 형태, 자녀의 수, 배우자 유무,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양육 부담, 노부모부양 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다.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 구성 형태는 37.7%(78명)로 가장 많고, ‘부모와 부부와 자녀’ 구성 형태는 33.3%(69명), ‘부부와 기혼자녀’ 구성 형태는 29.0%(60명)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수를 살펴보면, ‘2명’이 49.8%(103명), ‘3명 이상’이 27.1%(56명), ‘1명 이하’가 23.1%(48명)의 비율로 조사되어 농촌 지역이 핵가족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있다’가 96.6%(200명), ‘없다’가 3.4%(7명)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42.0%(87명), ‘원하지 않는다’ 26.1%(54명), ‘그저 그렇다’ 12.1%(25명), ‘매우 원한다’ 10.1%(21명), ‘원한다’ 9.7%(20명)로 조사대상자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 부담에 대해 ‘있다’ 33.8%(70명), ‘매우 있다’ 28.1%(58명), ‘없다’

16.4%(34명), ‘그저 그렇다’ 14.5%(30명), ‘전혀 없다’ 7.2%(15명)로 조사되어 농촌 지역이 자녀 교육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저 그렇다’ 29.0%(60명), ‘매우 있다’ 24.2%(50명), ‘있다’ 21.7%(45명), ‘없다’ 13.0%(27명), ‘전혀 없다’ 12.1%(25명)로 나타났다.

〈표 7〉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족구성형태	부부+자녀(기혼)	60	29.0
	부부+자녀(미혼)	78	37.7
	부모+부부+자녀	69	33.3
	합계	207	100
자녀의 수	1명 이하	48	23.1
	2명	103	49.8
	3명 이상	56	27.1
	합계	207	100
배우자 유무	있다	200	96.6
	없다	7	3.4
	합계	207	100
노후에 자녀와 동거여부	전혀 원하지 않는다	87	42.0
	원하지 않는다	54	26.1
	그저 그렇다	25	12.1
	원한다	20	9.7
	매우 원한다	21	10.1
	합계	207	100
자녀 양육 부담	전혀 없다	15	7.2
	없다	34	16.4
	그저 그렇다	30	14.5
	있다	70	33.8
	매우 있다	58	28.1
	합계	207	100
노부 부양 부담	전혀 없다	25	12.1
	없다	27	13.0
	그저 그렇다	60	29.0
	있다	45	21.7
	매우 있다	50	24.2
	합계	207	100

3)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노인인식 연령, 노후준비 관심, 노후준비 인식 시기, 노후 문제, 노후 영농의향, 노후 영농의향의 이유, 노후준비계획,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계획 이유, 노인시설입소를 살펴본 결과<표 8>과 같다. 노인인식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51.2%(106명)가 '70세부터' 노인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5세부터' 26.6%(55명), '60세부터' 22.2%(46명)로 노인인식 연령이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 관심에 대해서는 '매우 있다'가 39.0%(81명)로 가장 많았고 '없다' 25.8%(53명), '있다' 19.7%(41명), '그저 그렇다' 12.1%(25명), '전혀 없다' 3.4%(7명)로 조사되어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준비인식 시기는 '50대 이전부터'가 86.0%(178명), '60대 이상부터'가 14.0%(29명)로 젊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염려 되는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문제' 45.4%(94명), '경제관련 문제' 39.6%(82명), '소외관련 문제' 15.0%(3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 영농의향에 조사한 결과는 '있다' 82.6%(171명), '없다' 17.4%(36명)로 노후에도 영농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유는 '생계비 마련' 43.5%(90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이 36.7%(76명), '소외감 해소' 19.8%(41명)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33.8%(70명)로 나타나 농업인들은 노후준비 계획을 위한 여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있다' 20.3%(42명), '매우 있다' 18.9%(39명), '그저 그렇다' 14.0%(29명) '없다' 13.0%(27명)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 방법에 조사대상자 중 '농업소득' 38.2%(79명), '예·적금' 24.2%(50명), '보험·연금' 23.2%(48명), '기타 소득' 14.4%(30명)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계획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36.3%(75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대비' 24.6%(51명), '노후를 풍요롭게 대비' 21.7%(45명), '건강문제 대비' 17.4%(3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시설 입소에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매우 있다' 28.1%(58명)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있다' 20.8%(43명), '그저 그렇다' 19.3%(40명), '없다' 18.8%(39명), '전혀 없다' 13.0%(27명)로 나타났다.

〈표 8〉 노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노후인식 연령	60세부터	46	22.2
	65세부터	55	26.6
	70세부터	106	51.2
	합계	207	100.0
노후준비 관심	전혀 없다	7	3.4
	없다	53	25.8
	그저 그렇다	25	12.1
	있다	41	19.7
	매우 있다	81	39.0
	합계	207	100.0
노후준비 인식시기	50세 이전부터	178	86.0
	60대 이상부터	29	14.0
	합계	207	100.0
노후 문제	경제관련 문제	82	39.6
	건강관련 문제	94	45.4
	소외관련 문제	31	15.0
	합계	207	100.0
노후 영농 의향	있다	171	82.6
	없다	36	17.4
	합계	207	100.0
노후 영농의향 이유	생계비 마련	90	43.5
	건강증진	76	36.7
	소외감해소	41	19.8
	합계	207	100.0
노후준비 계획	전혀 없다	70	33.8
	없다	27	13.0
	그저 그렇다	29	14.0
	있다	42	20.3
	매우 있다	39	18.9
	합계	207	100.0
노후준비 방법	보험·연금가입	48	23.2
	예·적금	50	24.2
	농업소득	79	38.2
	기타소득	30	14.4
	합계	207	100.0
노후준비이유	건강문제 대비	36	17.4
	경제문제 대비	51	24.6
	노후를 풍요롭게 생활대비	45	21.7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75	36.3
	합계	207	100.0
노인시설 입소	전혀없다	27	13.0
	없다	39	18.8
	그저 그렇다	40	19.3
	있다	43	20.8
	매우 있다	58	28.1
	합계	207	100.0

2.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차이는 각 변인에 대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각 독립변수의 두 집단 이하인 변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과 종교 유무, 농외직업은 T-test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력, 영농 형태, 연소득은 두 개 이상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실시하는 ANOVA의 사후다중비교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세부 영역의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평균값을 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는 여성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 평균값은 고졸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 대졸이상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에 대한 세부영역의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평균값을 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농 형태의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값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축산, 과수작물, 일반 밭작물, 시설화훼, 순으로 사회적 노후준비는 축산, 과수작물, 일반밭농사, 시설화훼 순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농외직업에서 영역별 노후준비를 살펴본 결과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보면,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

후준비는 농외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없는 경우가 높게 분석되었다.

연소득은 ‘육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등 전 영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구분		N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	116	3.29	0.54	-0.53	3.34	0.39	1.66	3.32	0.51	0.25
	여	91	3.33	0.48		3.25	0.39		3.30	0.62	
학력	중졸	29	3.13	0.54	2.34	3.22	0.41	0.96	3.21	0.56	0.84
	고졸	97	3.35	0.51		3.30	0.39		3.35	0.60	
	대졸	81	3.32	0.49		3.34	0.38		3.29	0.47	
종교	있다	79	3.36	0.53	1.16	3.33	0.43	0.69	3.41	0.57	2.01*
	없다	128	3.28	0.50		3.29	0.37		3.25	0.50	
영농 형태	밭농사	59	3.19	0.50	5.03**	3.19	0.35	3.36*	3.30	0.46	0.90
	과수작물	95	3.62	0.61		3.35	0.51		3.32	0.49	
	시설화훼	27	3.17	0.53		3.32	0.35		3.19	0.88	
	축산	26	3.34	0.46		3.45	0.46		3.43	0.52	
농외 직업	없다	59	3.26	0.53	-0.95	3.32	0.41	-1.63	3.33	0.43	0.27
	있다	148	3.33	0.50		3.33	0.38		3.30	0.59	
연소득	2천만원미만	28	3.24	0.54	1.43	3.24	0.31	1.28	3.24	0.55	0.23
	2천만원이상	123	3.32	0.50		3.28	0.41		3.32	0.60	
	6천만원이상	56	3.44	0.53		3.37	0.38		3.33	0.40	

*p<.05, **p<.01.

2)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조사대상자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족구성 형태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부부와 기혼자녀’의 가족구성 형태에서 높게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의 가족구성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수에 따른 세부영역의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서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3명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자녀의 수에 따라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없는 경우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여부에 대해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평균값은 ‘동거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부양 부담에 대해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평균값은 자녀부양 부담이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있다’가 경제적 노후준비는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노부모부양 부담에서는 <표 10>와 같이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는 ‘전혀 없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있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없다’가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구분		N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가족 구성	부부+자녀 (기혼)	60	3.74	0.52		3.31	0.35		3.24	0.45	
	부부+자녀 (미혼)	78	3.30	0.49	0.73	3.30	0.40	0.24	3.42	0.65	2.63
	부모+부부+자녀	69	3.27	0.54		3.30	0.42		3.25	0.47	
자녀수	1명 이하	48	3.27	0.49		3.25	0.40		3.14	0.47	
	2명	103	3.44	0.56	2.12	3.32	0.39	0.91	3.49	0.50	3.87*
	3명이상	56	3.26	0.50		3.35	0.40		3.37	0.46	
배우자 유무	있다	200	3.27	0.5		3.32	0.4		3.30	0.5	
	없다	7	3.23	0.8	0.39	3.28	0.03	0.29	3.14	0.6	1.03
노후에 자녀와 동거여부	전혀 원하지 않는다	87	3.53	0.60		3.42	0.49		3.61	0.62	
	원하지 않는다	54	3.46	0.50	3.49**	3.23	0.37	1.23	3.30	0.51	3.21**
	그저 그렇다	25	3.13	0.47		3.38	0.35		3.39	0.46	
	원한다	20	3.38	0.49		3.32	0.43		3.39	0.41	
	매우 원한다	21	3.31	0.49		3.30	0.38		3.15	0.46	
자녀부양 부담	전혀 없다	15	3.33	0.27		3.28	0.37		3.20	0.41	
	없다	34	3.24	0.54		3.35	0.43		3.30	0.69	
	그저 그렇다	30	3.39	0.55	0.74	3.30	0.40	0.70	3.33	0.50	0.23
	있다	70	3.40	0.40		3.27	0.40		3.36	0.41	
	매우 있다	58	3.30	0.53		3.44	0.30		3.32	0.48	
노부모부양 부담	전혀 없다	25	3.29	0.51		3.32	0.40		3.29	0.51	
	없다	27	3.26	0.51		3.28	0.42		3.52	0.87	
	그저 그렇다	60	3.42	0.43	0.93	3.30	0.38	0.58	3.33	0.40	1.83
	있다	45	3.27	0.60		3.36	0.37		3.17	0.47	
	매우 있다	50	3.26	0.53		3.31	0.39		3.31	0.53	

*p<.05, **p<.01.

3)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

조사대상자의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다. 노인인식 연령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인식 연령의 전 영역에서 평균값은 70세부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에 큰 문제의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역에서 평균값은 소외감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건강문제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 관심에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인식 시기에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전 영역에서 '60대 이상 부터'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노후에 일 할 의향이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노후에 일 할 의향의 '있다'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후에 일 할 의향의 이유의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등 전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평균값은 신체적 노후준비는 건강증진,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생계비 마련이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감 해소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계획에 대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매우 있다’가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는 ‘보험·연금가입’이 평균값이 높고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예·적금가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준비계획이유에 대한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 노후준비의 평균값은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는 경제문제 대비, 사회적 노후준비는 여유로운 생활대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입소의 노후준비 차이를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노후준비의 전 영역에서 노후에 노인시설에 입소 할 의향이 ‘매우 있다’가 높은 결과를 조사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구분		N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노인인식연령	60세부터	46	3.37	0.58	6.42**	3.31	0.40	1.85	3.31	0.47	4.02*
	65세부터	55	3.11	0.53		3.22	0.43		3.14	0.54	
	70세부터	70	3.39	0.44		3.35	0.36		3.40	0.56	
노후에큰문제	경제적문제	82	3.28	0.50	1.37	3.32	0.41	0.49	3.29	0.46	0.33
	건강문제	94	3.29	0.51		3.28	0.39		3.34	0.64	
	소외감문제	31	3.45	0.54		3.34	0.34		3.26	0.44	
노후준비관심	전혀없다	7	3.29	0.84	0.54	3.31	0.39	2.70*	3.31	0.47	1.62
	없다	53	3.29	0.51		3.16	0.40		3.17	0.49	
	그저그렇다	25	3.30	0.64		3.37	0.39		3.42	0.52	
	있다	41	3.45	0.49		3.35	0.33		3.35	0.70	
	매우있다	81	3.59	0.45		3.41	0.51		3.47	0.67	
노후준비인식시기	50대이전부터	178	3.29	0.49	-1.68	3.28	0.39	-1.99*	3.29	0.54	-1.31
	60대이상부터	29	3.46	0.64		3.44	0.37		3.43	0.60	
노후에일할의향	있다	171	3.48	0.52	-2.20*	3.31	0.44	-0.14	3.40	0.45	-1.09
	없다	36	3.28	0.51		3.30	0.38		3.29	0.56	
노후에일할의향의이유	생계비 마련	90	3.31	0.52	0.04	3.33	0.39	0.37	3.32	0.66	0.52
	건강증진	76	3.32	0.38		3.27	0.44		3.32	0.45	
	소외감 해소	41	3.30	0.57		3.32	0.39		3.33	0.44	
노후준비계획	전혀 없다	70	3.33	0.37	2.32	3.31	0.39	3.15**	3.28	0.45	1.09
	없다	27	3.11	0.46		3.24	0.35		3.11	0.43	
	그저 그렇다	29	3.30	0.49		3.17	0.36		3.36	0.47	
	있다	42	3.43	0.63		3.33	0.39		3.28	0.49	
	매우 있다	39	3.44	0.55		3.49	0.44		3.38	0.54	
노후준비방법	보험·연금	48	3.47	0.57	3.08*	3.24	0.37	5.35***	3.37	0.49	1.00
	가입	50	3.21	0.50		3.49	0.35		3.36	0.74	
	예·적금가입	79	3.43	0.48		3.26	0.41		3.22	0.46	
	농업소득 가타소득	30	3.24	0.47		3.23	0.33		3.32	0.43	
노후준비계획이유	건강문제대비	36	3.35	0.48	0.50	3.20	0.41	2.75*	3.33	0.45	0.72
	경제문제대비	51	3.29	0.45		3.40	0.36		3.32	0.48	
	여유로운생활 대비	45	3.27	0.58		3.36	0.39		3.39	0.81	
	자녀에게부담 주지않기위해	75	3.38	0.53		3.26	0.36		3.24	0.43	
	노인시설입소	27	3.32	0.58		1.42	3.16		0.35	3.31*	
없다	39	3.23	0.51	3.24	0.37		3.26	0.46			
그저그렇다	44	3.22	0.54	3.28	0.43		3.33	0.46			
있다	43	3.32	0.51	3.3	0.38		3.36	0.76			
매우있다	54	3.44	0.51	3.45	0.37		3.36	0.45			

*p < .05, **p < .01, ***p < .001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3개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17개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시행하였다.

주요 변인과 노후준비와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체적 노후준비 측면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영농형태($r=.186, p<.01$)와 가족관계 변인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r=.143, p<.05$)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서는 노후에 일할 의향($r=-.152, p<.05$)로 나타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 측면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영농형태($r=.210, p<.01$), 노후인식 관련 변인에서는 노후준비 관심($r=.145, p<.05$), 노후준비 시기($r=.138, p<.05$), 노후준비방법($r=.219, p<.01$), 노인시설입소($r=.234, p<.01$)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종교($r=-.139, p<.05$), 가족관계 요인에서 자녀 수($r=-.166, p<.05$)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r=.164, p<.05$)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신체적노후준비	1																		
2	경제적노후준비	.462**	1																	
3	사회적노후준비	.387**	.453**	1																
4	영농형태	.186**	.210**	.022	1															
5	농외직업	.066	.113	-.019	-.055	.165*	1													
6	연소득	-.116	.108	.033	.027	.230**	-.086	1												
7	가족구성형태	-.083	-.104	.004	.169*	.097	-.19**	.086	1											
8	지녀수	-.122	-.090	-.166*	-.041	.073	-.071	.021	-.029	1										
9	노후에지녀와 동거여부	.143*	.098	.164*	-.173*	.110	.125	-.009	.051	-.054	1									
10	지녀부담	-.072	-.101	.012	-.099	-.064	-.002	-.158*	.224**	.040	-.003	1								
11	노부모부양부담	-.032	-.034	-.077	.061	-.041	-.104	.047	.293**	-.030	.112	.270**	1							
12	노후준비만족	-.023	.145*	.107	.067	-.116	-.075	-.026	-.046	-.019	-.077	-.062	-.064	1						
13	노후준비시기	.117	.138*	.091	-.055	.134	.070	.091	-.093	-.022	.106	-.046	-.059	-.107	1					
14	노후에 일할의향	-.152*	-.010	-.076	.059	-.167*	-.064	.038	.058	.061	-.027	.063	.008	.171*	-.072	1				
15	노후에일할 의향이유	-.002	-.008	-.063	.122	-.075	-.140**	-.024	-.007	-.055	.148*	-.112	.045	.015	-.112	-.277**	1			
16	노후준비계획	-.135	-.072	-.125	-.058	-.054	.018	.002	-.032	-.041	.059	.018	.066	.054	-.031	-.018	.012	1		
17	노후준비방법	-.016	-.219**	-.073	-.023	.037	-.033	-.088	.062	.058	-.050	.102	.112	-.047	.051	-.155*	-.054	-.129	1	
18	노후준비 계획이유	-.036	-.012	-.053	.033	-.051	-.016	-.045	.052	.042	-.169*	-.006	.036	.061	-.003	.076	.015	-.140*	-.138*	1
19	노인시설텍소	.114	.234**	.114	.001	-.013	-.121	-.078	.038	-.052	-.069	-.051	.068	.010	-.011	-.166*	.045	-.054	-.044	-.043

4. 노후준비 결정요인이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1)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정도는 공차한계가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에 없었다.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회귀선의 F값은 1.913으로 유의확률($p=.000$)이 나타나 회귀선 모델에 적합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422$ 이었으며, 모형의 R^2 는 17.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영농형태($\beta=.245$), 연소득($\beta=-.151$)과 가족관계 변인의 자녀의 수($\beta=-.137$), 노후인식관련 변인의 노후준비계획($\beta=-.15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I-4, I-6, II-2, III-4는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영농의 형태는 이윤우(2006), 연소득은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지민선(2005)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말순(2004), 김병운(2002), 송명숙(2002), 김기태(2004)의 선행연구와 노후준비계획에서 박창제(2011), 최경환(2012)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아 다른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과수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일수록, 연소득의 적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노후준비계획이 없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영농형태($\beta=.245$), 연소득($\beta=-.154$), 노후준비계획($\beta=-.151$), 자녀의 수($\beta=-.1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B	표준오차	β				
인구사회 학적 특성	(상수)	2.629	.320		8.227	.000		
	영농형태	.099	.031	.245	3.228	.001***	.774	1.292
	농외직업	.031	.063	.036	.486	.620	.825	1.213
	연소득	-.093	.045	-.151	-2.081	.039*	.841	1.189
가족관계 특성	가족구성 형태	-.049	.037	-.101	-1.329	.185	.775	1.291
	자녀의 수	-.075	.038	-.137	-1.983	.049*	.926	1.080
	노후에 자녀 동거 여부	.040	.021	-.138	-.1905	.058	.840	1.190
	자녀양육부담	-.023	.023	-.074	-1.003	.317	.805	1.242
	노부모부양부담	.001	.022	.003	.040	.968	.797	1.255
	노후인식 관련특성	노후인식 연령	.037	.033	.077	1.192	.265	.939
노후준비 관심	.004	.021	.015	.213	.832	.897	1.115	
노후준비인식시기	.089	.078	.081	1.147	.253	.899	1.112	
노후에 일할의향	-.045	.078	-.044	-.574	.567	.756	1.323	
노후에 일할의향이유	-.007	.037	.014	.185	.854	.811	1.233	
노후준비 계획	-.038	.017	-.154	-2.209	.028*	.917	1.091	
노후준비방법	-.016	.027	-.041	-.573	.567	.871	1.148	
노후준비 계획이유	.010	.025	.029	.404	.687	.858	1.116	
노후시설 입소	.018	.020	.065	.917	.360	.875	1.142	

R=.422, R²=.178, 수정된 R²=.085, F=1.913, p=.000

*p<.05. **p<.01. ***p<.001.

주) 성별(0=남자, 1=여자), 종교(0=있다, 1=없다), 배우자 유무(0=있다, 1=없다), 농외직업(0=있다, 1=없다), 노후에 일할 의향(0=있다, 1=없다), 영농 형태(0=일반작물(과수포함), 1=축산)

주) 재코딩: 학력(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3=대학교 이상), 연소득(1=2천만원미만, 2=2천만원이상, 3=3천만원이상), 가족구성 형태(1=부부+기혼자녀, 2=부부+미혼자녀, 3=부부+부부+자녀), 자녀의 수(1=1명이하, 2=2명, 3=3명이상), 노후인식연령(1=60세부터, 2=65세부터, 3=70세부터), 노후준비인식 시기(1=50세부터, 2=60세이상부터), 노후 문제(1=경제관련문제, 2=건강관련문제, 3=소외관련문제). 노후에 영농의향 이유(1=생계비마련, 2=건강증진, 3=소외감해소)

2)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노후준비의 하위변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모형의 검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정도는 공차 한계가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애 문제가 없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회귀선의 F값은 2.958($p=.000$)로 나타나 회귀선 모델에 적합하였다. 이때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501$ 로 모형의 R^2 는 25.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변인 중 영농형태($\beta=.165$)와 가족관계 변인의 자녀의 수($\beta=-.139$), 노후인식관련 변인의 노후준비 관심($\beta=.206$), 노후준비 방법($\beta=-.222$), 노인시설입소($\beta=.1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I-4, II-2, III-3, III-6, III-7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기각이 되어 영농 형태는 이윤우(2006)의 선행연구 일치하지만 노후준비관심은 박창제(2011), 최경환(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자녀의수는 최정숙(2007), 성말순(2004), 노후준비 방법에서는 최경환(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면 시설입소 여부에 대해서도 노후에 노인시설 입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황승일(2000), 김양이(2008)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과수농업에 종사할수록,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을수록, 노인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수가 많을수록, 노후준방법이 형태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노후준비관심($\beta=.206$)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시설입소($\beta=.199$), 영농형태($\beta=.165$), 노후준비방법($\beta=-.222$), 자녀의 수($\beta=-.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수)	2.832	.282		9.564	.000		
	영농형태	.062	.027	.165	2.287	.023*	.774	1.292
	농외직업	-.085	.055	-.108	-1.543	.125	.825	1.213
	연소득	.033	.040	.059	.845	.399	.841	1.189
가족관계 특성	가족구성 형태	-.005	.033	-.010	-.142	.887	.775	1.291
	자녀의 수	-.070	.033	-.139	-2.107	.037*	.926	1.080
	노후에 자녀 동거 여부	-.015	.018	-.056	-.813	.417	.840	1.190
	자녀양육부담	-.025	.020	-.088	-1.246	.214	.805	1.242
	노부모부양부담	-.005	.019	-.017	-.240	.811	.797	1.255
노후인식 관련특성	노인인식 연령	-.012	.029	-.028	-.420	.675	.939	1.065
	노후준비 관심	.056	.018	.206	3.070	.002**	.924	1.083
	노후준비인식시기	.112	.069	.110	1.633	.104	.899	1.112
	노후에 일할의향	.073	.069	.078	1.067	.287	.756	1.323
	노후에 일할의향이유	.010	.033	0.21	.295	.768	.811	1.233
	노후준비 계획	-.011	.015	-.046	-.695	.488	.917	1.091
	노후준비방법	-.079	.024	-.222	-3.265	.001**	.871	1.148
	노후준비 계획이유	-.006	.022	-.019	-.274	.784	.858	1.166
	노후시설 입소	.051	.018	.199	2.923	.004**	.875	1.142

R=.501. R²=.251, 수정된 R² =.166. F=2.958, p=.000,

*p<.05. **p<.01. ***p<.001.

주) 성별(0=남자, 1=여자), 종교(0=있다, 없다=1), 배우자 유무(0=있다, 1=없다), 농외직업(0=있다, 없다=1), 노후에 일할 의향(0=있다, 1=없다), 영농형태(0=일반작물(과수포함), 1=축산)

주) 재코딩: 학력(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3=대학교 이상), 연소득(1=2천만원미만, 2=2천만원이상, 3=6천만원이상), 가족구성 형태(1=부부+기혼자녀, 2=부부+미혼자녀, 3=부모+부부+자녀), 자녀의 수(1=1명이하, 2=2명, 3=3명이상), 노후인식 연령(1=60세부터, 2=65세부터, 3=70세부터), 노후준비인식 시기(1=50세부터, 2=60세이상부터), 노후에 문제(1=경제관련 문제, 2=건강관련 문제, 3=소외관련 문제), 노후 영농의향 이유(1=생계비 마련, 2=건강증진, 3=소외감 해소)

3)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노후준비의 하위변인 사회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모형에 대한 검증한 결과는 <표 14> 와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관정도는 공차한계가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회귀선의 F값은 1.719로 유의확률($p=.000$)로 나타나 회귀선 모델에 적합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413$ 으로 모형의 R^2 는 17.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변인 중 자녀 수($\beta=-.169$),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beta=-.145$) 노후인식관련 변인의 노후준비관심($\beta=.161$), 노후준비계획($\beta=-.14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II-2, II-4, III-3, III-4만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자녀의 수는 최정숙(2007), 성말순(2004)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배계희(1988), 신은식(2002), 황승일(2000)의 선행연구에서는 전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관심과 노후준비계획에서는 박창제(2011), 최경환(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자녀 2명 이하가 대부분으로 미혼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핵가족화로 되어가는 가족구조의 현실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힘든 육체적 노동에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겪는 부담이 되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계획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이 인식전환으로 노후준비 관심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노

후준비관심($\beta=.161$)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수($\beta=-.169$),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beta=-.145$), 노후준비계획($\beta=-.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인구사회 학적 특성	(상수)	3.369	.457		7.371	.000		
	영농형태	.010	.044	.017	.217	.828	.749	1.334
	농외직업	.079	.089	.065	.882	.379	.825	1.213
	연소득	.045	.064	.051	.694	.488	.828	1.208
가족관계 특성	가족구성 형태	.023	.043	.033	.433	.666	.773	1.293
	자녀의 수	-.130	.054	-.169	-2.427	.016*	.926	1.080
	노후에 자녀 동거 여부	-.059	.030	-.145	-1.981	.049*	.838	1.194
	자녀양육부담	.027	.033	.062	.828	.409	.838	1.194
	노부모부양부담	.040	.032	-.096	-1.269	.206	.794	1.259
노후인식 관련특성	노인인식 연령	.052	.047	.077	1.108	.269	.939	1.065
	노후준비 관심	.067	.030	.161	2.243	.026*	.879	1.137
	노후준비인식시기	.123	.111	.078	1.102	.272	.891	1.123
	노후에 일할의향	-.150	.111	-.105	-1.356	.177	.754	1.326
	노후에 일할의향이유	-.050	.054	-.070	-.931	.353	.800	1.250
	노후준비 계획	-.051	.025	-.144	-2.049	.049*	.914	1.094
	노후준비방법	-.049	.039	-.099	-1.257	.210	.870	1.149
	노후준비 계획이유	-.004	.035	-.009	-.125	.900	.858	1.166
	노후시설 입소	.040	.029	.101	1.400	.163	.859	1.164

R=.413. R²=.171, 수정된 R² =.071. F=1.719, p=.000,

*p<.05. **p<.01.

주) 성별(0=남자, 1=여자), 종교(0=있다, 없다=1), 배우자 유무(0=있다, 1=없다), 농외직업(0=있다, 없다=1), 노후에 일할 의향(0=있다, 1=없다).

주) 재코딩: 학력(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3=대학교 이상), 연소득(1=2천만원미만, 2=2천만원이상, 3=6천만원이상), 가족구성 형태(1=부부+기혼자녀, 2=부부+미혼자녀, 3=부모+부부+자녀), 자녀의 수(1=1명이하, 2=2명, 3=3명이상), 노후인식연령(1=60세부터, 2=65세부터, 3=70세부터), 노후준비인식 시기(1=50세부터, 2=60세이상부터), 노후 문제(1=경제관련 문제, 2=건강관련 문제, 3=소외관련 문제). 노후 영농의향 이유(1=생계비마련, 2=건강증진, 3=소외감해소).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저출산·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인구고령화 비율이 높고 고령화 진행속도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기존 선행연구는 일반 중년층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적절한 사회적 지원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료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평균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노후준비 결정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성별은 남자가 56.0%, 학력은 고졸이 46.9%, 종교는 없는 경우가 61.8% 순의 분포를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영농형태는 과수작물 45.9%, 농외직업이 겸업농 71.5%, 연소득은 이천만원 이상 59.4%의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 과수 농업과 겸업농 순으로 조사 되었다.

두 번째, 가족관계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의 가족구성 형태가 37.7%, 자녀의 수는 2명이 49.8%,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있는 경우가 96.6%,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자녀양육 부담이 '있다'가 33.8%, 노부모 부양부담이 '그저 그렇다'가 29.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인식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노인인식 연령은 70세부터가

51.2%, 노후준비 관심이 '매우 있다' 39.1%, 노후준비 인식 시기는 50대부터가 8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 건강관련 문제가 45.4%, 노후에 영농의향이 '있다'가 82.6%, 노후에 영농의향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43.5%, 노후준비 계획은 '전혀 없다'가 33.8%, 노후준비 방법에는 농업소득이 38.2%, 노후준비 계획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36.3%, 노인시설 입소에는 '매우 그렇다'가 28.1%, 가장 많았다.

넷째,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심리적·사회적 여유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영농형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여타 농업보다 소득이 높은 축산과 과수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등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수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값을 보면 자녀 수 3명인 경우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2명 이상인 경우는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부모부양 부담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는 '없다'가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있다'가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후인식관련 변인에 따른 영역별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인식 연령, 노후에 일 할 의향, 노후준비 방법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준비 관심, 노후준비 인식시기, 노후준비 계획,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계획 이유, 노인시설 입소는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 인식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노후준비 인식연령의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70세부터' 노후에 일 할 의향은 '있다' 노후준비 방법은 '보험·연금가입'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노후준비

관심 ‘매우 있다’, 노후준비 인식시기 ‘60대 이후부터’ 노후준비계획 ‘매우 있다’ 노후준비 방법 ‘예·적금가입’ 노인시설 입소 ‘그저 그렇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 인식연령에서 ‘70세부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농형태와 연소득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영농형태는 축산과 과수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가족관계 변인의 일반적 특성은 자녀의 수와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은 자녀 2명 이하가 대부분으로 미혼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핵가족화로 되어가는 가족구조의 현실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힘든 육체적 노동에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겪는 부담이 되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아홉째, 노후준비인식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에서 노후준비계획은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노후준비 관심, 노후준비 방법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 노인시설입소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이 인식전환으로 기존 노인세대 보다 보험·연금 가입으로 노후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노후준비 관심에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 지역 고령화 현실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농촌 지역 거주한 제주지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로 현재 농촌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노후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노후준비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들 중 영농형태, 연소득, 자녀의 수, 노후에 자녀와 동거 여부, 노후준비관심, 노후준비계획, 노후준비방법, 노인시설 입소가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형태와의 관련성을 밝혀, 농업의 생산 구조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농산물 개방으로 기존 영농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도입을 통해 소득의 다각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노동집약적 소득 작물재배와 함께 농업경영의 풍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농촌관광, 전통식품 가공사업, 등으로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하여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촌 지역별 농업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련된 변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임의표집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농업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후준비를 파악하는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측면만 고려하여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숙(2005),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 의식 연구」, 동국대학 석사학위 논문.
- 강유진(2005), 「한국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30·40·50대 기혼남녀를 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권혁창·신혜리·김진수(2012),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219-248.
-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하·김현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 김남순(2009),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인식에 관한 연구: 개인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노인인력개발포럼』 5: 29-58.
- 김문을(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윤(2002),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6),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은선(1983), 「노후안정을 위한 청·장년의 준비 의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우성 외(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1.
- 김영민(2006), 「베이비붐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완(2010), 「우리나라 베이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2008), 「농촌지역 예비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및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53-80.
- 박경숙(2000), 「농촌과도시 재가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경기도 재가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학회』 6(1): 175-211.
- 박대식·정명채·허장(2000), 「노령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2011), 「100세시대도래에 따른 농어촌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외(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덕배(2005), 「베이비붐세대(1955-1963) 노후대책 막막하다」, 현대경제연구소,
- 박지승(2012), 「베이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인의 은퇴준비」, 은퇴연구소.
- 박창제(2010), 「중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 방하남·신동균·이성균(2010),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배계희(199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걱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연구』 24(2): 27-51.
- 서미혜·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연구」,

- 『대한간호학회지』 23(3):467~483.
- 서전·박혜인(2004)., 「중년기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집.
- 성말순(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숙(2002),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석진(2004),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연구」,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식(2002), 「독신 미혼여성의 노후관련 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민선(2005),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희(2006), 「농촌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배문조(2010),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애리(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가구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호성·강성원·문외솔 외(2010),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조미영(2006), 「중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 특성이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2(4).
- 이중섭.(2010), 「한국 농촌노인의 생활과 복지」,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

- 이정화(2010),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20(2):275-289
- 이영희(2002),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539-546.
- 이윤우(2006), 「영농형태별 농가소득격차요인분석」, 농촌경제 29(1).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1): 205-224.
- 이현숙(2008), 「직장근로자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수(2007), 「중장년들의 인지된 건강상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8권 2호, 통권 101호, 329~340.
-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 윤영석·이병훈·박춘기(2013), 「농가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36(3): 35-1.
- 최성재·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경환(2012),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명화·최수일(2012),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6): 249-264.
- 최정숙(2007), 「내·외 통제성이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희행정논총.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차영란·김기범·전경숙(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 12(3): 299-309.
- 한경혜(2010), 「한국베이부머: 생활세계와 라이프코스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20(1); 45-70.
- 함인희(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서울, 나남.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201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2013). 출생자 통계.

통계청(2013).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4).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2014). 고령자 통계.

통계청, e-s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Antonuchi,

T., H. Akiyama, and K. Takahashi(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6(4): 353-370.

Laditk, S,

B(2009), "Attitude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i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49: 1-39.

Lazarus

For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 NY: McGraw-HILL.

Rowe J. W.,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원생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정책이나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설문조사는 농촌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농업인대상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는 【베이비붐세대농업인의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석사학위 논문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이 바쁘신 줄 알면서도 잠시 도움을 청하신데 대해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게 설문에 응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04.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지도교수 : 김 진 영

연구자 : 이 군 옥

다음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농업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란에“√”표를 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졸업이상
3. 귀하께서는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는 어떤 농사(작목)를 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밭작물 ② 과수작물
(시설포함) ③ 시설화훼 ④ 축산 ⑤ 기타
5. 귀하께서는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께서는 연 소득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2천만원 이하 ② 2천만원 이상 ③ 6천만원 이상 ④ 일억원 이상

※ 다음은 가족관계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란에“√”표를 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가족 구성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부부 ② 부부+자녀(기혼) ③ 부부+자녀(미혼) ④ 부모+부부+자녀
⑤ 부모+본인 ⑥ 본인
2.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3. 귀하께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 ①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② 원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원한다.
⑤ 매우 원한다.

5.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데 자녀양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7.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부모부양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다음은 노후관련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란에“√”표를 하시면 됩니다.

1. 노인이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0세부터 ② 65세부터 ③ 70세부터 ④ 75세부터 ⑤ 기타

2. 귀하께서는 노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문제 ② 건강관련문제 ③ 의료비(병원,약값 등) ④ 자녀 뒷바라지
⑤ 가정 및 사회에서 역할상실, 소외문제 ⑥ 기타

3. 귀하께서는 평소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4. 귀하께서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세 이전부터 ② 40대부터 ③ 50대부터 ④ 60대 이상부터 ⑤ 기타

5. 귀하께서 노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귀하께서 노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하실 의향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계비 마련 ② 용돈마련 ③ 건강증진 ④ 사회참여 ⑤ 소외감 해소
 ⑥ 기타
7. 귀하께서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귀하께서 노후준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표 해 주십시오.
 ① 보험, 연금 가입 ② 예금, 적금 ③ 농업소득 ④ 부동산투자
 ⑤ 농지매입 ⑥ 자녀에 대한 투자 ⑦ 기타
9. 귀하께서 노후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대비를 위하여 ② 경제문제 대비하기 위하여
 ③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하여 ④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하여
 ⑤ 기타
10. 귀하께서 노후를 노인시설에서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노후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해당 란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2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다.					
3	성인병에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 섭취를 적게 한다.					
4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주, 흡연을 피한다.					
5	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6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 한다.					
7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8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9	피곤하면 곧 휴식을 취 한다.					
10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 한다.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경제적 노후대책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연금, 보험을 들고 있다.					
2	노후를 위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3	노후를 위해 절약하며 생활한다.					
4	노후의 안정을 위해 매사에 계획적으로 지출한다.					
5	노후의 생활비는 나 스스로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6	아플 때는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7	노후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자녀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동창회, 친목회 등의 적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3	부부끼리 서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공동체 삶에 대한 의식이 높다.					
5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6	나는 노후에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7	노후에 어울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